

# 2017 한국건강형평성학회 추계 학술대회

주 제

젠더폭력과 건강

일 시

2017년 11월 23일(목)  
9:00~18:00

장 소

중앙대학교 R&D 센터(102관)  
3층 대강당

10:00~12:00 학회 사전행사

## “자매에게 정의를!”

학술대회 사전행사로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고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여성살해 femicide’ 사건과 여성들의 연대를 다룬 작품입니다.  
국내 여성살해 자료를 분석한 학회 공식 재담꾼 김유미 교수,  
대중문화계의 멸종위기종인 남성 페미니스트 위근우 작가와 함께 합니다.



### •상영작 : “자매에게 정의를”

- 감독 : 김벌리 바우티스타 Kimberly Bautista  
- 러닝타임 70분, 서울인권영화제 상영작

•사회 : 김유미 (동아대학교)

•이야기손님 : 위근우 작가

(전 대중문화매거진 [아이즈] 취재팀장.  
저서 [웹툰의 시대]와 [프로블펀러 일기])

### •영화 시놉시스

어느 날, 아델라(27)는 출근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아델라의 전 남자친구는 그녀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를 때까지 때리고 도로변에 버렸다. 아델라의 이야기는 지난 10년 간 6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과테말라에서도 유명하다. 과테말라에서 6천 명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들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단 2%에 불과하다. 아델라의 언니인 레베카(34)는 부패하기로 악명이 높은 과테말라의 법체계와 싸우고 있다. 그녀는 아델라가 남기고 간 세 아이, 그리고 그녀의 다섯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집에서 포피야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정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레베카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들은 과테말라에서 발생한 이 사건과 유사한 수천 개의 다른 사건들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하지만 슬픈 와중에도 사실상 조사자의 역할을 도맡고자 하는 그녀의 마음은 특별하다. 레베카는 지난 3년간의 투쟁 동안 많은 시련에 부딪혔다. 분실된 경찰 수사기록,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당한 판사, 너무 두려운 나머지 증언하지 않는 목격자들. 그간의 고군분투로 완전히 탈바꿈된 레베카는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는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출처: <http://hrffseoul.org/ko/film/968>)

● 주최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 후원 :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사업단